

경제포커스

■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

윤형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

최경규(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

최경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gchoi@stanfordalumni.org

I. 서론

- 글로벌 경제의 진전과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가 및 지역의 산업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에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적극지원하고 있음.
-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직접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과 우리 경제의 이해관계가 양자 간 상생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함.
- WTO의 보고서에 따르면 FDI 유입은 자본 형성효과, 기술과 경영 노하우 전파효과, 수출시장 접근 효과, 기업가 양성 및 전후방 연계효과, 경쟁효과, 고용효과, 국제수지와 거시경제안정 효과의 7가지 주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저자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Stanford University 경영학 박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위원
- 중소기업의 ERP 도입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중소기업연구, 2005) 등

-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위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를 경제현안에 활용하고자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음.
- 서울 시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의 정립과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동기와 한국 외국인투자기업이 평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를 알아봄.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봄.
 - 향후 한국시장의 전망과 서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로서의 적합성 평가 및 지역본부가 되기에 부족한 사항 등을 파악하고 향후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를 알아봄.

II.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동기와 경영환경

- 본 절은 한국 내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해 KOTRA가 실시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의 3개년에 걸친 자료와 Gallup Korea의 2006년 서울지역 외국인 투자기업에 관한 조사를 정리·분석하였음.
- 이 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 동기와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우선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절에서 외투기업의 경영성과 및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를 살펴봄.

1. 한국 투자 동기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시장성장 잠재력(2006년 60.7%)이 가장 중

요한 동기이며,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2006년 35.4%)이나 내수시장 진출은 동기로서의 중요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반면, 기술인력 확보와 R&D 환경은 그 중요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환경으로 변화의 방향을 알 수 있음.
- 전국 대비 서울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 순위에 있어서 1위(시장 성장 잠재력)와 2위(내수 시장 진출)를 제외한 하위 순위는 상당히 다른 답변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에 비해 서울은 R&D 환경(11.9% vs. 7.5%)에 대한 평가는 높으나 생산효율성(1.7% vs. 7.5%)의 면에서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음.
 - 특히,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을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투기업은 전무함.
- 서울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투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기술인력확보와 산업인프라에서 큰 차이가 남.
 - 제조업에서 기술인력확보의 동기는 18.2%로서 비제조업의 7.1%보다 월등히 높아 서울지역에 대한 제조업의 투자는 저조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서울의 산업인프라는 제조업이 12.1%이나 비제조업은 1.2%로 투자동기로서 차이가 매우 큼.

<표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투자동기

(단위: %)

구분		시장 성장 잠재력	내수시장 진출	인근시장진출 교두보	기술인력 확보	산업 인프라	생산 효율성	R&D 환경
전체	2004년	60.5	45.3	12.1	7.6	8.5	6.3	5.4
	2005년	50.4	44.0	10.4	8.88	8.88	8.0	7.2
	2006년(전국)	60.7	35.4	12.5	10.7	6.8	7.5	7.5
	2006년(서울)	64.4	34.7	8.5	11.9	4.2	1.7	11.9
제조업	2004년	54.9	48.0	11.8	10.8	10.8	10.8	6.9
	2005년	44.4	52.1	10.3	10.3	10.3	9.4	7.7
	2006년(전국)	54.3	43.0	11.9	12.6	8.6	11.3	6.6
	2006년(서울)	48.5	42.4	9.1	18.2	12.1	0.0	12.1
비제조업	2004년	65.0	43.3	11.7	5.0	6.7	2.5	4.2
	2005년	66.3	39.1	9.8	6.5	5.4	3.3	5.4
	2006년(전국)	69.0	27.0	12.7	8.7	4.0	3.2	8.7
	2006년(서울)	70.2	32.1	8.3	7.1	1.2	2.4	11.9

주: 복수응답허용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2. 경영환경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의 금융, 세무, 노무, 인력채용, 입지선정, 물류 및 R&D 등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2006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보통수준의 만족도 (5점 척도기준으로 평균 2.89점)를 보이고 있으며, 48.2%의 외투기업이 경영환경 만족도를 보통으로 평가함.
- 2005년 만족도 결과 대비, 전국의 만족도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오차 범위 내에 있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2006년 평균점을 비교하면, 서울이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만족’ 한 기업의 비중이 전국보다 높으며, 특히 비제조의 경우 약 40%의 외투기업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점)
전체	2004년	17.5	46.2	36.3	2.79
	2005년	25.2	48.0	26.8	2.97
	2006년(전국)	23.6	48.2	28.2	2.89
	2006년(서울)	35.6	45.8	18.6	2.75
제조업	2004년	19.6	50.0	30.4	2.89
	2005년	27.4	51.3	21.4	3.06
	2006년(전국)	24.5	53.0	22.5	2.99
	2006년(서울)	27.3	57.6	15.2	2.79
비제조업	2004년	15.8	42.5	41.7	2.71
	2005년	20.7	44.6	34.8	2.84
	2006년(전국)	22.2	42.1	35.7	2.77
	2006년(서울)	39.3	40.5	20.2	2.73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III. 외국인투자의 경영성과와 경제적 효과

- 서울시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한국경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절은 산업자원부와 KOTRA가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환경, 경제적 효과, 정책적 제언”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원 데이터(raw data)를 분석한 것임.¹⁾
- 현재 조사대상은 157개 외국인 투자기업이며 조사내용은 한국의 투자환경,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및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분류됨.

1.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계획 대비 2005년의 성과’와 국내기업이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의 ‘FDI 이전과의 비교’로 구분하여 ‘재무안정성’, ‘매출’, ‘설비투자’, ‘순수익’ 및 ‘R&D’의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음.
- 2005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계획대비 성과에서 긍정적(향상 혹은 약간 향상)인 것으로 답변한 기업의 비중은 ‘재무안정성’ 및 ‘매출’의 경우, 약 50% 가량이며, 순수익(45%), 설비투자(35%), R&D(30%)으로 평가되었으나, ‘R&D’ 부문에서 ‘향상되었다’고 답변한 기업은 7.6%에 불과함.
- FDI 이전과의 비교에서도 ‘R&D’는 3.8%만의 기업이 ‘향상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기업도 3.8%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연구개발에 그다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1)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환경, 경제적 효과, 정책적 제언”의 설문조사는 산업자원부와 KOTRA가 Gallup Korea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으로, raw data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분석한 것임.

〈표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성과

구분		향상됨 (%)	약간 향상됨 (%)	보통 (%)	별로 향상되지 않음 (%)	향상되지 않음 (%)	평균(점)
재무안정성	계획 대비 05년 재무안정성 성과	22.9	29.9	28.0	8.9	7.0	4.60
	FDI 이전과의 재무안정성 비교	13.4	17.8	19.7	2.5	3.2	4.66
매출액	계획 대비 05년 매출 성과	21.7	28.0	22.3	14.0	10.2	4.41
	FDI 이전과의 매출 비교	12.7	16.6	22.3	6.4	1.9	4.56
설비투자	계획 대비 05년 설비투자 성과	13.4	21.7	36.9	13.4	5.1	4.28
	FDI 이전과의 설비투자 비교	8.3	15.9	24.8	7.0	1.9	4.40
순수익	계획 대비 05년 순수익 성과	17.2	28.0	16.6	24.2	10.8	4.18
	FDI 이전과의 순수익 비교	7.0	17.8	21.7	8.9	3.8	4.27
R&D	계획 대비 05년 R&D 성과	7.6	22.3	38.9	10.8	5.7	4.18
	FDI 이전과의 R&D 비교	3.8	15.3	29.3	2.5	3.8	4.22

주: 1) 원래 7점 척도로 작성된 것으로 [6~7 : 향상됨, 5: 약간 향상, 4: 보통, 3: 별로 향상되지 않음, 1~2: 향상되지 않음]의 카테고리 재구성하였음.

2) 각각의 비중의 합이 100%가 되지 않는 것은 '모름/무응답'으로 답한 기업들에 기인함. 특히 FDI 이전과의 비교는 국내기업이 FDI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된 기업만이 답변한 것이므로 100%와의 격차는 큼.

2.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 FDI의 경제적인 효과를 23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FDI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3개의 항목을 각각의 설문대상기업이 선정함으로써 평가함.

○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외국인 투자 유치)로 인하여 한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 3개의 선택에 대한 답변은 전체 응답한 기업의 수(157개) 대비 해당 항목의 빈도수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가 가능함.

- 첫째,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항목으로는 '고용증진' (48.4%)과 '기술이

전 및 기술향상' (40.7%)으로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40%를 상회함.

- 둘째,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20%~30%인 그룹으로, 아래 표에서는 '국내시장의 성장 및 수출증가(26.8%)' 항목에서 '한국시장의 글로벌 시장화(20.4%)' 항목까지가 두 번째 그룹으로서,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임.
- 셋째,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10%~20%인 그룹으로, 아래 표에서는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18.5%)' 에서 '세수증대(11.5%)' 항목까지로서,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넷째, 전체 응답 기업 수 대비 항목별 응답수의 비율이 10% 미만에 해당하는 그룹으로서, '소비자의 안목향상(9.6%)' 에서부터 '불필요한 법률규제의 축소(0.6%)' 까지의 항목으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됨.

○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FDI의 수출 및 시장여건 개선에 대한 영향이 산업 및 기업경쟁력에 대한 영향보다는 크다고 인지됨.

- 전자는 '국내시장의 성장 및 수출증가', '한국시장을 글로벌 경쟁시장으로 촉진' 및 '(한국시장의) 글로벌 시장화' 로 대체로 시장과 관련이 있는 항목들로서 FDI가 수출 및 시장 상황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후자의 경우는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경쟁을 통한 체질강화', '한국 산업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 및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의 산업경쟁력과 관련된 항목들과 '기업 재무건전성 촉진' 과 '세수증대의 기업성과 관련 항목들로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적으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네 번째 그룹은 '법률규제', '노사관계' 및 '비즈니스 공정성 증진에 의한 기업 성취의욕 증진' 및 '비즈니스의 투명성' 등 제도 및 기업문화와 관련성이 큰 항목들로서 이처럼 기업 활동의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FDI의 영향력이 가장 적으며 변화가 어려운 부문임을 알 수 있음.

〈표 4〉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범례 번호	세부사항	빈도수(개)	비율(%)
1	고용증진	76	48.4
2	기술이전 및 기술향상	64	40.7
3	국내시장의 성장 및 수출증가	42	26.8
4	한국시장을 글로벌 경쟁시장으로 촉진	37	23.6
5	(한국시장의) 글로벌 시장화	32	20.4
6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29	18.5
7	경쟁을 통한체질강화	24	15.3
8	기업 재무건정성 촉진	21	13.4
9	한국산업을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	19	12.1
10	부품, 유통 등 관련산업의 발달에 파급효과(Spillover)	19	12.1
11	세수증대	18	11.5
12	소비자의 안목 향상	15	9.6
13	(거래비용의 최소화 등) 비즈니스의 투명성 증진	14	8.9
14	한국사회의 개방화 증진	10	6.4
15	노동생산성의 증진	10	6.4
16	(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한) 경제활성화	8	5.1
17	산업 클러스터 발전	8	5.1
18	유통, 금융, 법률, 교육, 관광 등 기초인프라 개발 촉진	7	4.5
19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등 투자촉진 제도의 개선	6	3.8
20	(비즈니스 공정성 증진으로) 기업 성취의욕 증진	5	3.2
21	노사관계의 건전성 증진	4	2.5
22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기업 개발의욕의 증진	2	1.3
23	불필요한 법률규제의 축소	1	0.6

IV. 한국시장의 전망

1.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영업 전망

- 한국시장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낙관적이라 할 수 있으나, 2006년의 경우 낙관적 전망의 감소(5.8%p 하락)와 비관적 전망의 증가(7.5%p 상승)로 인해 2005년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증가하였음.

- 비제조업의 경우 서울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영업전망(50%)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5〉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영업 전망

구분		개선(%)	변화없음(%)	악화(%)	평균(점)
전체	2004년	40.4	34.1	25.6	3.14
	2005년	44.4	38.8	16.8	3.34
	2006년(전국)	38.6	37.1	24.3	3.15
	2006년(서울)	43.2	34.7	22.0	3.24
제조업	2004년	33.3	36.3	30.4	3.01
	2005년	41.0	41.0	17.9	3.28
	2006년(전국)	35.1	39.1	25.8	3.10
	2006년(서울)	27.3	42.4	30.3	2.88
비제조업	2004년	45.8	32.5	21.7	3.24
	2005년	42.4	41.3	16.3	3.32
	2006년(전국)	-	33.3	23.0	3.21
	2006년(서울)	50.0	31.0	19.0	3.38

주: 2006년 전국의 경우 통계치에서 자료 누락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2.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외국인투자 확대 가능성

- 2005년에 비해 투자 확대 의견은 감소하고 투자 축소 의견은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소 감소하였음.
- 그러나 비제조업의 경우, 전국과 서울지역 모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 확대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
 - 특히 비제조업의 서울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는 45.2%로서 서울지역 제조업의 33.3%로 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6〉 향후 3년간 한국시장의 외국인투자 확대 가능성

구분		확대(%)	변화없음(%)	축소(%)	평균(점)
전체	2004년	42.6	43.9	13.5	3.31
	2005년	50.8	36.4	12.8	3.46
	2006년(전국)	42.1	38.2	19.6	3.28
	2006년(서울)	41.5	42.4	16.1	3.31
제조업	2004년	47.1	40.2	12.7	3.38
	2005년	58.1	29.9	12.0	3.56
	2006년(전국)	39.1	41.1	19.9	3.27
	2006년(서울)	33.3	45.5	21.2	3.18
비제조업	2004년	38.3	47.5	14.2	3.25
	2005년	41.3	46.7	12.0	3.36
	2006년(전국)	46.0	34.9	19.0	3.29
	2006년(서울)	45.2	41.7	13.1	3.38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V. 지역본부 및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 이 절에서는 한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평가,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을 분석하고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를 알아봄.

1. 기업 지역본부(regional hub) 설치

1)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 평가

-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의 경우 50.7%가 부정의 의견을 보여, 아직까지 한국은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비제조업 분야(부적합: 53.2%)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시장개방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비제조업에 대한 지역본부 설치의 적합성은 적합과 부적합이 제조업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견해가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비제조업 내에서 개방이 된 업종과 개방이 되지 않은 업종 등 업종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됨.

〈표 7〉 외국인투자기업 지역본부 설치 적합성 평가

구분		적합(%)	보통(%)	부적합(%)	평균(점)
전체	2004년	-	-	-	-
	2005년	18.8	26.0	55.2	2.57
	2006년(전국)	17.5	31.8	50.7	2.56
	2006년(서울)	17.8	28.8	53.4	2.53
제조업	2004년	-	-	-	-
	2005년	16.2	25.6	58.1	2.52
	2006년(전국)	14.6	36.4	49.0	2.56
	2006년(서울)	15.2	36.4	48.5	2.58
비제조업	2004년	-	-	-	-
	2005년	15.2	26.1	58.7	2.48
	2006년(전국)	21.4	25.4	53.2	2.56
	2006년(서울)	19.0	26.2	54.8	2.51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2)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시장 성장성(26.4%)을 최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이어 외국어 구사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17.9%), 인근시장 접근성(13.2%)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조사 결과 대비 시장성장성 및 인근시장 접근성 등의 시장에 대한 중요도는 높아진 반면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고려는 낮아져, 지역본부 설치국가의 시장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경우에도 전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과 비제조업 간에는 차이가 있음.
 - 서울에 위치한 외투기업의 경우 제조업에서는 인근 시장 접근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고, 비제조업에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이 중요 고려사항임.

〈표 8〉 지역본부 설치를 위한 국가 선정 시 우선 고려사항

(단위: %)

구분	외국어구사 가능한 숙련노동력	시장 성장성	인근 시장 접근성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	낮은 조세 부담률	정부 정책의 일관성	
전 체	2004년	19.7	-	27.8	10.8	9.0	-
	2005년	25.6	23.2	12.0	8.0	7.6	7.2
	2006년(전국)	17.9	26.4	13.2	6.1	6.1	9.3
	2006년(서울)	19.5	26.3	14.4	8.5	7.6	7.6
제 조 업	2004년	18.6	-	29.4	10.8	3.9	-
	2005년	25.5	22.2	12.8	8.5	9.4	6.0
	2006년(전국)	15.9	28.5	12.6	3.3	4.0	12.6
	2006년(서울)	15.2	27.3	21.2	6.1	0.0	9.1
비 제 조 업	2004년	20.0	-	26.7	10.8	13.3	-
	2005년	26.1	21.7	9.8	7.6	5.4	10.9
	2006년(전국)	20.6	23.8	13.5	9.5	8.7	5.6
	2006년(서울)	21.4	25.0	11.9	9.5	10.7	7.1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3)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

-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항목들로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22.5%)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20.7%) 항목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2005년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항목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 제조업의 경우, 2005년에 비해 2006년에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은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으나(12.0% → 3.3%), ‘적정한 임금수준’은 다소 악화되었음(12.8% → 19.2%)을 알 수 있음.

〈표 9〉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 부족한 사항

(단위: %)

구분	외국어구사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	정부 정책의 일관성	본사직원 파견에 걸맞는 생활의 질	적정한 임금수준	인근시장 접근성	선진화된 법률회계 서비스	
전체	2004년	19.3	-	17.9	-	13.9	14.3
	2005년	24.4	12.8	9.6	10.4	5.2	5.2
	2006년(전국)	22.5	20.7	8.2	14.3	4.3	6.1
	2006년(서울)	25.4	23.7	11.0	10.2	6.8	5.9
제조업	2004년	19.6	-	17.6	-	16.7	9.8
	2005년	24.8	10.3	12.0	12.8	-	-
	2006년(전국)	21.2	22.5	3.3	19.2	2.0	4.6
	2006년(서울)	27.3	27.3	6.1	12.1	3.0	3.0
비제조업	2004년	18.3	-	18.3	-	11.7	18.3
	2005년	22.8	13.0	7.6	9.8	-	-
	2006년(전국)	24.6	19.0	13.5	7.9	7.1	7.9
	2006년(서울)	25.0	22.6	13.1	8.3	8.3	7.1

2.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향후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건전한 조사관계 정착 >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 개방 확대 등이 언급됨.
- 반면, 서울의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개방 확대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을 언급하여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서울의 경우, 비제조업에서의 국민의식 국제화는 42.9%로, 제조업의 30.3%에 비해 매우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비제조업에서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에 대한 요구는 19%로 제조업의 33.3%에 비해 매우 낮으나, ‘외국어 사용 보편화’ 항목에서는 비제조업이 17.9%로 제조업의 3.0%에 비해 매우 높음.

〈표 8〉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단위: %)

구분	국민의식 국제화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시장개방 확대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 확보	조세부담 완화	외국어 사용 보편화	
전체	2004년	32.3	58.3	24.2	16.6	11.7	11.2
	2005년	41.6	28.4	11.6	24.4	13.6	13.6
	2006년(전국)	31.1	34.6	22.5	12.9	13.2	13.9
	2006년(서울)	39.0	23.7	34.7	11.0	10.2	13.6
제조업	2004년	28.4	65.7	16.7	17.6	13.6	13.6
	2005년	39.3	38.5	-	23.9	16.2	12.8
	2006년(전국)	26.5	48.3	18.5	13.9	13.9	10.6
	2006년(서울)	30.3	33.3	33.3	12.1	12.1	3.0
비제조업	2004년	35.8	52.5	30.8	15.8	-	-
	2005년	47.8	21.7	-	27.2	9.8	9.8
	2006년(전국)	37.3	18.3	27.0	11.1	12.7	17.5
	2006년(서울)	42.9	19.0	34.5	10.7	9.5	17.9

자료: KOTRA(2004, 2005, 2006), Gallup Korea(2006)

VI. 시사점

○ 외국기업의 투자 동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

-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와 결정 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강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한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동기를 보면 시장성장 잠재력이 가장 중요한 동기이며, 다음으로 내수시장 진출이나 기술인력 확보와 R&D 환경은 그 중요성이 다소 높아지고 있어, 투자동기가 내수시장 진출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음.
- 서울은 R&D 환경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서울지역의 생산효율성이나 산업인프라를 보고 투자하는 제조업종의 외투기업은 매우 적으므로, 전략적으로 비제조업 혹은 서비스 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부문별 차이점

- 외국인투자는 한국경제에 ‘고용증진’ 과 ‘기술이전 및 기술향상’ 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수출 및 시장 상황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대한 영향보다는 적으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함.
- ‘법률규제’, ‘노사관계’ 및 ‘비즈니스 공정성 증진에 의한 기업 성취의욕 증진’ 및 ‘비즈니스의 투명성’ 등 제도 및 기업문화와 관련성이 큰 항목들에 대해서는 FDI의 영향력이 가장 적으며 변화가 어려운 부문임을 알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에 위한 노력

- 2005년에 비해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제조업의 경우 서울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영업전망을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지역본부를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시장개방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지역본부 설치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장 성장성과 한국이 지역본부 설치 국가로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숙련된 노동력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시급함.

○ 서비스 산업의 경우 단순한 투자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

- 서비스 산업의 경우 거시 경제적 환경 및 인적 자원의 수준, 생활환경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제반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함.
- 외국인이 살기 어려운 생활 환경상 애로는 인적 자원의 교류가 수반되는 서비스 부문 직접투자의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임.
- 외국 투자기업들은 교육환경, 고질적인 도로체증, 의료 환경 및 임대차 제도 등을 한국 내 경영 애로 사항으로 지적됨.
- 또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나친 규제 및 제조업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 등으로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 환경이 취약함.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

- 서울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민의식 국제화 > 시장개방 확대 >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 을 언급하여 그 순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비제조업에서는 국민의식 국제화와 외국어 사용 보편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반면,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대한 요구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외투기업을 통하여 기술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흡수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외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못지않게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학습능력 제고와 관련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는 정부의 진입규제와 이익집단의 진입규제 해소와 연계하여 상호정책 간에 순효과를 내도록 유도해야 함.

참고문헌

- Gallup Korea(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경영환경 애로 조사: 자료편-서울, Gallup Report
- Gallup Korea(2006), “외국인 투자기업과 한국경제: 투자환경, 경제적 효과, 정책적 제언” 설문조사 데이터, 산업자원부
- Invest Korea and KOTRA(2004), 2004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 Invest Korea and KOTRA(2005), 2005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
- Invest Korea and KOTRA(2006), 2006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보고서